

후두의 류마티스양 관절염 치험 2례

대진의료원 분당제생병원 이비인후과 음성언어연구소

안철민 · 최지호* · 이승훈 · 김성태

류마티스양 관절염은 파괴적인 전신질환으로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질환은 증상의 정도나 유병기간이 파동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특히 관절에서는, 무릎과 같이 큰 관절에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많지만, 작은 말단 관절에서도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후두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류마티스양 관절염이 있는 환자의 약 25%에서 관찰된다고 하였고, 사후 연구에서는 50~80%까지에서 후두의 류마티스양 관절염이 관찰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후두에서 류마티스양 관절염에 대한 보고가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질환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많은 질환들을 단순히 후두염이나 성대마비정도로 간과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저자들은 음성 변화와 성대마비가 관찰되었던 환자 중 후두의 류마티스양 관절염으로 확인된 2례에서 스테로이드를 이용하여 좋은 결과를 보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